**Introduction : 작성자 - 김가희**

굿모닝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guys having a great day?

먼저, 저희 팀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let me introduce you of our team.

저희 팀명은 ‘Heyday’이며 전성기를 뜻합니다.

Our team’s name is ‘heyday’ which means one's best and glory days.

저희는 오래 사용하지 않은 가구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We thought the heyday of the useless and old furniture had passed.

그리하여 가구에게 업사이클을 통해 새로운 전성기를 찾아주고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To bring back the heyday of our furniture through upcycling, we named our team ‘Heyday’.

팀원으로는 저 비즈니스영어과 2학년 김가희 , 생활가구디자인학과 2학년 임서연, 소프트웨어공학과 1학년 지상근, 소프트웨어공학과 2학년 권준오가 있습니다.

For the team members we have 4.

I am gahee kim, a sophomore from business english.

We also have 서연 임 a sophomore from living furniture design,

상근 지 and 준오 권, a freshman and sophomore from software engineering.

저는 서론과 결론을 맡고 있고 서연은 가구 파트를, 상근이와 준오는 웹페이지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I am in charge of the introduction and the conclusion part, 서연 as the furniture part, and 상근&준오 as the webpage part.

발표로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Before we get into the main presentation, I’d like to tell you about the project we have participated in this semester.

프로그램의 이름은 ‘창의융합코스’로 비즈니스영어과, 생활가구디자인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총 3개의 학과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The name of the project is ‘Creative Fusion Course’ and 3 departments which are business english, living furniture design, and software engineering work together.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업사이클링하여 그에 대한 소개 웹페이지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영어로 발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n this project, we upcycle the unused furniture, make a webpage of that furniture, and present in English all of what we did.

그리하여 저희는 지금 이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So we are going to finish this project with this presentation.

오늘 저희는 우리의 행성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발표하려 합니다.

(For the topic of our presentation,) We would like to talk about ‘upcycling’ which is one of the greatest way to protect our planet.

업사이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Have you heard of ‘upcycle’?

업사이클이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Upcycle’ means giving new value to the old product and using it as a new product.

그러한 점에서 ‘재활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In that regard, ‘upcycle’ is different from ‘recycle’.

재활용은 단지 특정 제품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Recycle’ is just reusing the same product as before.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클은 재활용보다 지구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That is why ‘upcycle’ is better for the Earth than ‘recycle’.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Unfortunately, not many people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e and upcycle.

우리만 해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업사이클을 몰랐습니다.

Even we didn’t know what ‘upcycle’ was before this project.

그리하여 저희는 업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저희 발표의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So for the purpose of our presentation, we want to let people know the concept of ‘upcycle’.

저희 발표는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ur presentation is divided into 5 parts.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론입니다.

The first part is an introduction which I am doing now.

두 번째는 가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The second part is about the furniture we have made.

세 번째는 웹페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third part is about the webpage which we have also made by ourselves.

네 번째로 영어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한 후, 결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As the fourth part, I will tell you briefly about the English part then finish with the conclusion.

발표에 관한 질문은 결론이 끝나고 난 후에 받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ask after we finish our presentation.

서론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으로 저희가 제작한 가구에 관하여 임서연이 발표해주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he introduction and for the furniture part, 서연 임 will present.

다음 발표자를 환영해주세요!

Please welcome the next presenter! 서연 임!

**가구 : 작성자 - 임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가구파트를 맡은 임서연입니다.

Hi, I’m Seoyeon and I'm in charge of the furniture part.

디자인 선정 과정, 가구 제작 총 두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Furniture part is divided into two parts. Design selection process and furniture production.

첫째로 디자인 선정 과정입니다. 디자인 선정 과정은 컨셉정하기, 아이디어 스케치, 손도면, 캐드도면, 렌더링 순으로 진행됩니다.

First, design selection process. This process is progressed in order of concept selection, idea sketch, hand drawing, cad drawing, and rendering.

저희 조의 컨셉은 힐링입니다.

The concept of our team is healing.

**\*아이디어 스케치 사진 보여주기**

힐링을 떠올리면 육체적 편안함, 포근함, 아늑함 이런 키워드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조의 컨셉인 힐링을 가구에 녹이면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하였습니다.

With the word 'Healing', the keywords such as physical comfort and coziness came out.

We made an idea sketch by melting our group's concept of healing into furniture.

**\* 마크라메 사진 보여주기**

How do you feel with this thread?

그래서 우리는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두꺼운 실인 마크라메를 활용하여 가구를 업사이클링 하기로 하였습니다.

So we decided to upcycle the furniture using macrame, a thick thread that feels cozy.

**\*최종 아이디어 스케치 사진 보여주기**

And then this is our final idea sketch.

**\*손 도면**

최종 아이디어 스케치를 참고해서 캐드 도면에 들어가기 앞서 손도면을 그렸습니다. 손도면을 통해서 가구의 정확한 사이즈와 결합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Next, when it comes to hand drawing, we drew a hand drawing referring to the final idea sketch. Hand drawing gave us an exact size and combination structure of the furniture.

**\*캐드 도면**

손도면을 토대로 캐드 도면을 그렸습니다.

For the cad. We input the size and drew our furniture into the AUTOCAD program.

So we got this cad drawing. Cad is useful for getting the real size of our furniture.

**\*렌더링 사진**

우리 조의 최종 목업 사진입니다. 렌더링을 통해서 우리의 제작물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수정과 보완해야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For the next step, rendering which is kind of the modeling process.

This is our final furniture image.

With this rendering process, we could share opinions about our product giving tips and modifications.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Everyone, are you awake? I need your support!

다음으로 가구의 실제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표면정리, 컬러입히기, 라탄 선반 제작, 마크라메 선반제작 순으로 진행됩니다.

Next, I’ll talk about the working process of furniture. This process is progressed in order of tidying up the surface, coloring, making rattan and macrame shelves.

**\*제작 과정 사진 차례로**

첫째로 사포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였습니다. 우드 스테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컬러를 입혀주기 위해 가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포질을 하였습니다.

First, we disassembled the furniture for sanding easily.

다음으로는 우드 스테인을 사용하여 컬러를 입히고 건조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여 컬러를 입혀주었습니다.

Next, we repeatedly painted wood stain to make the furniture dark.

건조를 충분히 한 후 바니쉬를 사용하여 마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건조한 뒤, 분리했던 부품들을 본드를 사용하여 결합하였습니다.

And We assembled the separate part with attaching glue.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마크라메, 라탄을 사용하여 선반을 만들어주었습니다.

We made the shelves using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s of our team, macrame and rattan.

가장 기대한 재료인 마크라메가 생각보다 저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3번의 재시도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However, macrame hurt us deeply. It was so hard to handle making this product.

We tried three times for the pocket.

컬러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컬러를 통해 아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힐링을 표현한 다용도 선반이 완성되었습니다.

Can you feel our concept ‘healing’? We can feel coziness through the macrame . Through this process, a multiple shelf that expresses healing was completed.

We made multiple shelves for your belongings such as glasses and a wallet.

You can keep your belongings here and here. (ppt에 이미지 보여줄거임)

**\*주머니 사진 보여주기**

Can you guess what it is? This for your car key and airpods.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It was a difficult process.. but it was meaningful and exciting.

Thank you.

가구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발표자 권준오를 환영해주세요!

This is all for the furniture part. Please welcome the next presenter Junoh!

**웹 :**

**준오형 파트** : **작성자-권준오**

Hello, I'm Kwon Jun-oh, and today I'll talk about what we learned in the Web Page clas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journey of our webpage. We used three essential languages: HTML, CSS, and Javascript to build an attractive and interactive website. These languages are vital for making websites look good and work well. Let me explain each language in simpler terms.

안녕하세요, 저는 권준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웹페이지 수업 경험에 대해 웹페이지의 개발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력적이고 대화형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필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들은 웹사이트가 보기 좋고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각 언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irstly, HTML, or HyperText Markup Language, is like the skeleton of a web page. It builds the structure and content. It uses tags, which are like special instructions in brackets, to tell the web browser what to show.

For example, the <p> tag is for paragraphs, and <img> is for images. Think HTML as the framework that creates a web page.

첫번째로, HTML, 즉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는 웹 페이지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것은 구조와 내용을 만듭니다. 그것은 괄호 안의 특별한 명령어와 같은 태그를 사용하여 웹 브라우저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p> 태그는 문단을 위한 것이고, <img>는 이미지를 위한 것입니다. HTML을 웹 페이지를 만드는 뼈대로 떠올려 보세요.

Next up is CSS, or Cascading Style Sheets. It's like the artist that adds beauty to the web page made with HTML. CSS can change things like color, font, size, spacing, layout, and even make things move. CSS works on its own, so we can use different CSS files to give the same web page different looks. This lets us create many different designs.

For example, in the picture, we can also use CSS to make a movement or change when we use our mouse. So, think of CSS as a skin that makes web pages look good.

다음은 CSS 또는 Cascading Style Sheets입니다. 그것은 HTML로 만들어진 웹 페이지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예술가와 같습니다. CSS는 색상, 글꼴, 크기, 간격, 레이아웃과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CSS는 자체적으로 작동하므로 우리는 같은 웹 페이지에 다른 모양을 주기 위해 다른 CSS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다른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우리는 CSS를 사용하여 마우스를 사용할 때 움직임이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S를 웹 페이지를 멋지게 보이게 하는 스킨이라고 생각하세요.

Lastly, Javascript, a programming language, makes web pages do cool and interactive stuff. For example, when you click on a chair, the web page starts, and banners switch. JavaScript is like the muscles of a web page, making things move and change. It adds fun and makes the webpage more interesting for people.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는 웹 페이지가 멋지고 상호 작용적인 것들을 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의자를 클릭하면, 웹 페이지가 시작되고, 배너들이 바뀝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사물들을 움직이고 변화하게 만드는 웹 페이지의 근육과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재미를 더하고, 사람들에게 웹 페이지를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In summary, HTML, CSS, and Javascript work together to make websites. They team up to make web pages look nice and do cool things.That's all about my part. Isn't it great? Now, let me introduce the next presenter, Ji Sang-geun.

요약하면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함께 웹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웹페이지를 멋지게 보이게 만들고 멋진 일을 합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제 다음 발표자 지상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진-1 : css없는 html 웹페이지

사진-2 : css가 적용된 웹페이지

사진-3 : 의자 클릭

**지상근 파트** : **작성자-지상근**

권준오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Kwon Jun-oh. Hi, everyone!

저는 1학년 소프트웨어공학과 지상근입니다.

I'm jisanggeun, a freshman in S/W engineering department.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떨립니다!

I'm very nervous to be presenting in front of you today.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Let’s get started! I will introduce our website.

(사진-1을 보여준다 : 시작 사진)

저희가 만든 웹 사이트는 의자를 클릭하기 전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Our website doesn't start until you click the chair.

이 의자는 css를 이용하여 3D로 만든 것입니다.

This chair is made in 3D using css.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헤더, 메인, 푸터로 나뉩니다.

The page is divided into header, main, and footer.

(사진-2을 보여준다 : home 페이지 사진)

보시는 것이 바로저희 웹 사이트의 home 페이지입니다.

This is the home page of our website.

home 페이지는 업사이클, 프로젝트, 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 home page introduces upcycle, project, and our team.

각 파트는 투명도 조절, 위치 변경같은 특수효과를 넣어 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Each part is made to be shown with special effects such as transparency adjustment and position change.

각 파트의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파트로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If you click the button of each part, automatically it scrolls to the next part.

이제 서브 페이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sub-page now.

서브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헤더를 사용합니다.

We use the header to move to the sub-page.

헤더는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메뉴입니다.

The header is the menu located at the top of the page.

저희 헤더는 home, product, gallery, contact, follow u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ur header consists of ‘home’, ‘product’, ‘gallery’, ‘contact’, and ‘follow us’.

(사진-3을 보여준다 : production process 페이지 사진)

이것은 production process페이지입니다.

This is the production process page.

이 페이지는 컨셉, 스케치, 도면, 렌더링, 제작 과정 등을 슬라이드로 보여줍니다.

This page shows the concept, sketches, drawing, rendering, and production process in a slide effect.

제작 과정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정의 사진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When you click the buttons in the production process, it shows the picture of that specific process.

(사진-4을 보여준다 : furniture 페이지 사진)

다음은 furniture 페이지입니다.

Next is the furniture page.

furniture 페이지는 결과물과 재료를 소개합니다.

The furniture page introduces the final product and materials we used.

재료들은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확인 가능하십니다.

You can see all the materials by clicking the button.

(사진-5을 보여준다 : gallery 페이지 사진)

gallery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며 찍은 사진과 영상이 들어가있습니다.

The gallery shows photos and videos we've taken while working on the project.

클릭하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You can see it in more detail by clicking on it.

(사진-6을 보여준다 : interview 페이지 사진)

contact에는 interview가 준비되어 있다.   
There is an interview of us in ‘contact’.

질문들을 클릭하면 팀원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click on the questions to see our team members' answers.

(사진-7을 보여준다 : 인스타 페이지 사진)

follow us에는 저희 팀의 인스타 계정 프로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Follow us is linked to our team's Instagram.

(사진-8을 보여준다 : footer 페이지 사진)

마지막으로 푸터를 소개하겠습니다.

Lastly, let me introduce the footer.

푸터는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위치하는 페이지의 끝 부분입니다.

The footer is located at the end of the page.

로고, 주소, 저작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인스타 프로필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You can see the logo, address, copyright and other informations on the footer.

Also if you click the instagram logo, you can move to our Instagram.

아쉽지만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Sorry, This is all of my presentation. Thank for listeners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가희님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Now I will pass you over to my colleague, "Gahee Kim".

감사합니다.

Thank you!

**English**

안녕하세요 다시 나온 김가희입니다.

Hi It’s Gahee again.

결론으로 가기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영어 발표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Before we get into the conclusion, I would like to tell you about English briefly.

저희는 영어 수업 때 발표에 사용할 표현들과 필수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We learned expressions which can be used in our presentation and what we should say in the presentation.

이를 토대로 각자의 파트에 맞는 대본을 작성해보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으며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남았을까요? 많은 연습이죠!

Based on what we have learned in class, we made our script in Korean and English. Then we got feedback from the professor and edited it. Now, what do we have left? A LOTS and LOTS of Practice!!!!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영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We prepared this presentation in this process.

**Conclusion**

드디어 저희 발표가 끝나가네요.

Finally our presentation is getting to the end.

지금까지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을 요약해볼까요?

Now let’s sum up our presentation, shall we?

가구 파트에서는 저희 가구 컨셉인 힐링과 그에 대한 스토리, 손도면&캐드도면&렌더링의 3가지 도면들 소개를 했구요.

In the furniture part, we told you the theme of our furniture which is ‘Healing’ and a story for the theme. Then showed you the 3 blueprints of our furniture.

마크라메를 활용하여 부드럽고 안락한 느낌을, 라탄을 활용하여 튼튼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We used the macrame for being soft and cozy, rattan for being sturdy and stable.

웹페이지 파트에서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3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려드렸는데요. 틀을 만들어주는 html, 스타일을 넣어 꾸며주는 css, 동작을 표현하는 javascript에 대해 설명 후 이 셋을 통하여 저희 웹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In the webpage part, we told you 3 programming languages to make a webpage which are html for the frame, css for the style, javascript for the dynamic content. Then we told you how and where we used these languages for our webpage.

마지막으로는 발표에 사용되는 영어 표현과 구성에 대해 배웠음을 간단히 얘기해드렸습니다.

Lastly, we told you briefly that we learned the English expressions and structures for the presentation in Design English Presentation.

저희 발표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How was our presentation? It was great, wasn’t it?

창의융합코스를 참여하면서 정말 바쁘고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While working on this program, there were many busy and tough times.

과목마다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인원도 제일 적었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Since there were a lot of things to do in every class and our team had fewer members compared to other teams, we were running out of time every week even though we tried very hard.

At first, I regret not being focused on this project.

However, here we are.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 혹은 이번처럼 여러 일들이 겹칠 때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에너지 조절을 잘하며 마무리할 것입니다.

If I get another chance to do this kind of program or have lots of projects at the same time, I would organize and plan from the beginning to control the energy and finish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에 저희가 최선을 다한만큼, 저희 발표를 통해 업사이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Since we did our best in this program, we hope ‘upcycle’ is known to lots of people through our presentation.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This is all we have for our presentation.

지금까지 긴 시간 저희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We will finish our presentation with a big appreciation of ours for coming and listening to our presentation.

질문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주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us.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 and have a great day!!